

2016. 10. 12 수요일

대구환경공단 제14호

중 국 환 경 소 식 지

수석대표 최현상 (☎ +86 186-2606-1134 / chouhs9@hanmail.net)
부대표 김기곤 (☎ +86 186-2606-1194 / giraffeland@hanmail.net)
중국 강소성 의흥시 녹원로 501호 환보과기빌딩 B청사 403실. (☎:070-4137-8009)

1. 대구환경공단, 중국 중원환보와 환경사업 협력을 다짐하다



〈대구환경공단 등 한국측 및 중원환보고빈유한공사 관계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

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윤용문)은 지난달 21일 대구시의회(오철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등 8명) 및 대구시(경제정책과장 등 3명), 지역 유관기관(테크노파크, 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등과 함께 중국 정주시를 방문해 중원환보고빈유한공사와 환경사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장개척에 들어갔다.

정주시는 중국 하남성의 성도로 인구는 약 920만 명이며 주요 산업은 금속 및 전자제품 공업으로 대구시와는 2015년1월1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중원 환보고빈유한공사는 정주시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오수처리장 11개(총 시설용량 315만㎥/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원환보고빈유한공사는 한국의 검증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인 건조연료화 시설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지난 7월 직접 한국을 방문해 주요시설을 견학했다.

대구시와 대구환경공단은 지역에 연고를 둔 (주)엔바이오킨스의 중국 합자회사인 강소필립 환보공정유한공사의 중원환보 슬러지 처리시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도 그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양 기관은 △환경기초시설 기술 상호교환 △공동사업 발굴 및 육성 △우수기업 간 매칭시스템 구축 및 신규·개선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연구자료 제공 △인적자원의 교류 및 교육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시범사업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 한국의 슬러지 건조연료화 기술과 성공담보제, 폐기물 에너지를 통한탄소배출 감축정책을 발표해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윤용문 대구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국 내 환경사업의 수주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중국진출 희망기업 지원 및 동반 진출로 중국환경시장을 선점해 대구가 국가 물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 제1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최

○ 주요내용

대구시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중인 물산업의 해외시장 기반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Korea International Water Week)’을 개최한다.

국제물주간은 작년 4월 대구·경북 일원에서 열린 제7차 세계물포럼 성공 개최를 계기로 대구 물산업이 글로벌 물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추진되는 ‘포스트 물포럼’의 일환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제물주간은 국제사회의 물 이슈를 주도하고, 국내 물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해 국토부·환경부·대구시·경북도의 공동 주최로 창설된다. 2012년부터 열리고 있는 대구의 ‘대한민국 물산업전’과 경북의 ‘낙동강 국제물주간’을 통합한 것으로, 제1회 행사가 10월19일부터 22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대구시는 국제물주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 5월 열린 국제물주간 창설 킥오프 행사에서 주요 관련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8월에는 국제물주간 성공 개최를 다짐하며 홍보대사 위촉과 CI 선포 퍼포먼스 행사를 가졌다.

특히 물산업 선진도시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미국 밀워키·오렌지카운티, 프랑스 몽펠리에, 이스라엘 등 세계 물산업 선진도시와 ‘월드워터시티포럼(World Water Cities Forum)’을 개최하고, 아시아물위원회(AWC) 1차 총회에 참석해 106개 회원기관 중 25개 이사기관에 선출됐다. 또 올해 열리는 월드워터시티포럼에는 네덜란드 레이와르덴, 싱가포르, 일본 나고야 등 더 많은 물산업 선도도시를 초청하는 등 물 관련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처음 열리는 국제물주간 행사의 차질없는 준비와 함께 개·폐막식과 전시회 (Water Expo), 월드워터시티포럼, 국제물산업 컨퍼런스를 세계적 수준으로 개최해 세계 3대 국제물주간 행사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 물산업이 글로벌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중국·동남아·아프리카 등 신흥국 신설 수요와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교체수요를 타깃으로 해외시장 진출 및 개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실제 대구시는 지난해 중국내 물산업 선도도시인 이싱시와 수(水)처리분야 상호협력을 협약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중국 최대 섬유도시인 샤오싱시와 수처리분야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오는 11월에는 '2016월드 엑스포 차이나(Water Expo China)'에 참가해 중국내 타 도시들과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세계 10개국, 12개 도시 시장 등이 참석해 지방정부 차원의 파트너십 구축과 글로벌 물분야 정보교류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월드워터시티포럼 등 오는 10월 열리는 국제물주간 행사를 성공 개최해 세계 물산업 중심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KIWW) 2016 전체 프로그램

시간 일자	오전				오후					저녁		
	9:00 ~ 10:00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6:00	16:00 ~ 17:00	17:00 ~ 18:00	18:00 ~ 20:00		
10.19 (수)			개회식	오찬 (초청자 대상)	세계물포럼 실행 로드맵 점검회의		월드워 터파트 너십	워터리더스 라 운드테이블		환경 만찬		
					제3차 물 전문가 양성 워크숍							
					2016 제3차 물 환경 정책 포럼 (미래 지향적 물 관리 및 정책)							
					새마을 세계화와 물 협력							
					물산업정책 포럼							
					주제별 세션 오프닝							
					물문화 시민포럼							
						한국의 지속가능 한 물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세미나						
2016 국제 물산업 컨퍼런스												
엑스포(Water EXPO)												

시간 일자	오전				오후					저녁	
	9:00 10:00	10:00 11:00	11:00 12:00	12:00 13:00	13:00 14:00	14:00 15:00	15:00 16:00	16:00 17:00	17:00 18:00	18:00 20:00	
10.20 (목)	세계물포럼실행로드맵점검 회의 * 08:30 ~ 12:00					세계 물도시 포럼					워터 리더스 갈라디너 (초청자 대상)
	주제별 세션										
	제3차 물 전문가 양성 워크숍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행을 위한 물 환경 정책 및 기술 워크숍				우수 물기술 현장 적용 사례 공유 세미나						
	물산업클러스터 및 파트너 십을 위한 리더스 포럼			물산업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매칭							
	한국의 지속가능한 물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세미나										
		워터비즈니스 포럼									
	2016 국제 물산업 컨퍼런스										
	엑스포(Water EXPO)										
10.21 (금)	주제별 세션		주제별 세션 클로징							폐회식	
10.22 (토)	산업시찰 및 물 문화 투어										

○ 중국 환보과기공업원 및 기업인 등 참관 현황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를 참관하기 위하여 중국 환보과기공업원, 구아화도환보공정 유한공사, 강소신기환보유한공사, 강소람성환보유한공사, 호북이공대학교, 심천시 및 심천 수무그룹에서 10월 18일 ~ 22일까지 대구를 방문합니다.

○ 관심기업 교류 지원

이번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에 방문한 중국 기업은 상수도처리시설, 하·폐수처리시설, 소각처리시설, 음폐수처리 등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이며, 이 분야에 한국 우수기업체와 매칭 등 기술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3. 제4회 중국환보기술 및 산업발전추진회 행사

○ 행사개요

- ▶주최기관 : 국가과학기술부, 강소성 인민정부
- ▶협조기관 : 강소청과학기술청, 무석시인민정부
- ▶주관기관 : 이싱시 인민정부, 이싱환보과기공업원
- ▶행사일정 : 2016. 10. 27(목) ~ 28(목)
- ▶행사장소 : 장쑤성 이싱시 국제 환보과기공업원

○ 주요내용

중국환보기술 및 산업발전추진회는 국가 과기부와 강소성 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환경 기술창신과 환경산업발전, 교류플랫폼이다. 추진 회의는 이미 3회 개최되었고 지금은 비교적 높은 영향력과 비교적 좋은 인지도가 형성되었다. 과기부와 강소성정부가 공동으로 서명한 “이싱합작계획”에 근거하여, 본 추진회의는 과학기술, 산업, 자본, 환보산업을 융합하여, 창신발전의 새로운 길, 새로운 기능 및 새로운 모델로 영향력 있고 호소력 있는 큰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창신자원을 집결하여, 첨단산업발전 리드”를 주제로하여, 친환경산업 혁신법칙, 국제 선진경험과 이싱환과원의 창신 실천을 긴밀히 조합하여, 이싱환과원의 국제합작성과를 이루어 내고, 협력하여 “물생태과학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하고, 주요하게는 국제수처리 첨단장비제조 기지를 건설하고, 수처리 교육과학 연구기지, 국제수처리기술 시범구역, 물 과학기술박물관 등 건설을 통하여 세계 물산업중추로 만들어 큰 프로젝트, 대합 작을 통하여 환경산업의 대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 한국기업 중국 이싱환경 행사 방문단

대구사와 대구환경공단은 중국 환보과기공업원의 요청에 의하여 이싱에 소개되지 않은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기술 발표와 교류회를 준비 중에 있다.

4. 중국의 토양시장이 성공의 관건이다

가. 시장 현황

- '14년 발표한 중국의 첫 '토양오염 현황조사 공보'에 따르면 중국의 토양오염률은 16.1%에 달함. 조사 범위가 630만 km²에 불과했지만, 최소 100만 km²(우리나라 10배)의 토지가 오염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중 19.4%의 경작지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식품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철화학금속, 비철금속, 화학의약품 등 기업 용지의 오염률은 36.3%, 공업폐기지의 오염률은 34.9%, 공업단지의 오염률은 29.4%에 달했음. 토지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 공장들은 전국적으로 분포함.
- 중국 토지오염 유형은 무기물 위주로 전체 오염지역의 82.8%를 차지하고 있다.
- 무기물 오염은 주로 5대 독성 중금속(카드뮴, 수은, 비소, 납, 크롬)과 구리, 니켈, 아연 등이 원인임. 이 중 카드뮴 오염이 제일 심각한 상태로 전체 오염의 7.0%를 차지함.
- 각 지역, 분야에서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경제발전 방식이 총체적으로 미흡하고, 산업구조와 배치 또한 불합리한 점이 존재함.
- 오염물 총배출량이 비교적 많고, 토양은 대부분의 오염물의 최종 수용체로서 환경질의 영향을 현저히 받음.
- 심각한 토양오염 현황에 반해 중국 토양오염 예방과 개선은 정책, 기술, 법률, 표준체계 등 모든 방면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투자 유치를 위해 효과적인 상업 모델도 부족하며 토양 회복 산업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임.

나. 관련정책

- 2016년 5월 31일, 중국 국무원은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土壤污染防治行動計劃, 이하 '토양10조')을 발표.
- 중국은 분야별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3년 '대기10조'와 '15년 '물10조'를 발표했음.
- '토양 10조' 발표와 더불어 당국은 토양오염 방지 관련 법안도 검토 중이며,
- '토양오염방지회복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17년 말까지 국가토양환경감측 망을 만들고 '18년 말까지 농지오염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기로 함.
- 토지를 경지와 건설용지로 나눠 오염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토양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경지는 면적이 줄지 않도록 보호하고 심각한 오염경지에는 농산물을 심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기로 함.
- 건설용지는 토양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을 허용하고 오염 토지는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오염원 철거 등 철저히 관리하기로 함.

- 중국은 토습조를 토대로 '20년까지 오염경지 가운데 1천만 묘(畝·중국 토지면적 단위: 약 666.7m²)를 정비토록 함.
- 중국은 이번 토습조 추진이 2조7천억 위안(486조원)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200만 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활용방안

- 중국의 토지 오염개선 산업은 발전수준이 낮고 기술력 저하, 연구개발 투입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중국의 토지오염 개선업에 종사하는 기업 수는 '10년의 10여 개 사에서 최근 약1000개 사로 증가
- 국내 환경업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자금력은 물론 현지 정보 및 네트워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은 모험이 될 수 있음.
- 대기, 수자원, 토지 오염 방지 계획이 전면 시행되면서,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매년 2조 위안의 막대한 예산을 환경 분야에 쏟아 부을 것이며 환경산업은 새로운 국가 기간산업이자 신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게 될 것임.
- 한국 환경부 예측에 따르면, 중국 토양 회복시장의 투자규모는 5억7000만 위안을 초월함, 중국의 회복시장 잠재력은 매우 큼.
- '토양10조' 정책의 출현과 추진에 따라 토양 회복시장의 발전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기대를 모으고 있음.
- 향후 5년간 중국 토양 정화시장 규모는 6257억 위안에 달할 것이며, '16년 시장 규모는 371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 중국 상수도 정화 작업에 4,300억 위안 투자를 잡다

중국 환경보호부(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MEP) 장관은 중국 전역 상수도 시설 정화를 위해 약 4800개의 소규모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에 4300억 위안을 예산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5년에 진행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미 중국 내 지하수의 3분의 2, 지표수의 3분의 1이 유해물질 유출액, 폐수, 지나친 비료와 살충제 사용 등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수준으로 오염된 상태이다.

이에 주 정부는 올해 예산에 130억 위안을 편성하고 도시 식수 품질 개선 및 주요 강 오염 방지 작업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환경보호부(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MEP) 장관은 각 지역 정부의

능동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상수도 시설 정화 작업을 기간 내에 완료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각각 보상 또는 예산 삭감을 할당하며 장려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6. 중국의 공업폐수 비밀배출문제 「환경부장(장관) 기자회견 내용 요약」

당 중앙, 국무원은 수질오염방지업무에 대하여 아주 중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발표된 “수10조”(중국의 수질오염방지 실천계획 : 필자 주)는 35개 분야, 238개항의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수10조”는 2020년까지의 수질오염방지업무에 대하여 전면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바, 이는 하나의 최상층의 설계인 셈이다. 오늘날 중국 정부는 이러한 계획에 근거하여 “수10조”에 대한 업무를 각 부처, 각 성(구, 시)에 분담하고 있는 바, 이러한 목적은 “수10조”를 보다 더 적정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미 그 세부 실천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일련의 협조적인 정책들이 발표되었으며 대대적인 관리공정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서는 주요한 몇 가지 분야에서 수질오염을 적정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째, 문제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것이다.

둘째, 백성들에 대하여 5류에도 못 미치는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넷째, 중점영역을 중시하고 관리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섯째, 관리방식의 변화이다.

여섯째, 지방과 기업이 책임을 엄격하게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본 내용은 제11대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시 동 언론센터에서 중국 환경보호부 첸지닝 부장(장관)이 밝힌 “생태환경보호”에 대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주요내용 요약」

7. 공지사항

- 중국기업과의 협력 또는 상담 등 개별 기업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대구환경공단과 중국TFT를 경유 또는 진행사항을 항상 공유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화 또는 메일)
- 이를 통하여 보다 더 양질의 현지 정보제공과 중국기업과의 매칭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